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9. 2. 27.(수) 조간	배포 2019. 2. 26.(화)
담당부서	조사기획국	김충우 국장(3145-5550), 황진하 팀장(3145-5552)	

제 목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 발간

☞ 불공정거래와의 끝없는 전쟁, 그 역사의 기록

1 발간 배경

- 금융감독원은 1988년 K물산 내부자거래 적발*을 시작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해온지 3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

* 1988년에는 K물산 조치 외에도 舊증권감독원에 조사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조사업무 수행 관련 규정이 제정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의 원년으로 간주됨

- 1988년부터 2018년까지의 조사 성과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를 발간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과거 30년 동안 5천여 건의 크고 작은 불공정거래 사건들을 처리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2 주요 내용

- 금번 발간되는 책자는 ① 자본시장 발달사, ② 불공정거래 조사 30년, ③ 불공정거래 사건 30년 등 총 3편으로 구성

○ [제1편] 자본시장 발달사

- 국내 증권거래소가 처음 개설된 1956년부터 현재까지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의 발전과정을 정리

* 증권거래법 제정(1962), 증권감독원 설립(1977), 금융실명제 실시(1993), 코스닥증권 시장 개설(1996), 금융감독원 설립(1999), 자본시장법 시행(2009) 등

○ [제2편] 불공정거래 조사 30년

- 불공정거래 규제의 근간인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과 시대 흐름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변천과정을 기술

* 증권감독원에 조사전담부서 설치(1988), 불공정거래 제보자 포상제도 시행 및 인터넷 증권범죄 신고센터 개설(2000), 조사지원전산시스템 구축(2002), 부정거래 금지 신설 등 규제 강화(2009), 특별조사국 신설(2013),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신설(2015) 등

○ [제3편] 불공정거래 사건 30년

- 과거 30년을 3개의 연대로 구분, 각 연대별 유의미한 사건을 선별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조사 과정을 최대한 사실적이고 흥미롭게 묘사

* 증시 역사상 작전의 완결판으로 불린 'U사 시세조종 사건'을 비롯,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CP사기발행 사건' 등 수십 건의 불공정거래 사건들을 수록 ([붙임3] 참조)

3 기대 효과

- 금번 발간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는 국내 불공정거래 제도·사례를 연구하는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 자본시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확립에 기여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총 700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연구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 동 30년사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불공정거래조사 → 공지사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

1988 - 2018



금융감독원

목 차

1988 - 2018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



머리말 8

제1편
자본시장 발달사 15

제2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 41

제1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의 연혁 42
제1절 증권거래법의 불공정거래 규제 42
제2절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 규제 53

제2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발전 59
제1절 증권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59
제2절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68

제3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의 변천 84

제3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30년 89

제1장 조사사건으로 본 시대별 특징 90
제1절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도입 · 정착기(1988년~1996년) 90
제2절 불공정거래의 지능화와 조사업무 역동기(1997년~2007년) 95
제3절 불공정거래의 첨단화와 조사업무 중흥기(2008년~2018년) 101



제2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건	107
제1절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도입 · 정착기	107
최초의 불공정거래 적발 사건	107
상장사 대표가 주가조작을 주도하다 적발된 최초 사건	111
증권사 간부가 가담한 주가조작 사건	114
상장하자마자 부도, 묻지마 사기극	116
미공개정보 이용의 새로운 판례를 만든 사건	123
증권사 직원과 기관투자자의 수상한 거래	129
주가조작 사범에 중형을 선고하다	133
제2절 불공정거래의 다능화와 조사업무 역동기	137
코스닥시장의 ‘닷컴’ 열풍과 불공정거래 조사	137
보물선을 이용한 첫 주가조작 사건	142
카드사의 주가하락과 최대주주 등의 수상한 주식매각	146
최초의 해외 현지 조사 사건	150
바이오 관련주와 불공정거래	153
유령주 파동	156
외국계 펀드에 대한 최초 조치 사건	160
엔터테인먼트 테마주와 불공정거래	164
신기술개발을 호재로 이용한 불공정거래	170
다단계식 주가조작 사건	173
온갖 작전세력이 동원된 주가조작의 완결판	182
제3절 불공정거래의 첨단화와 조사업무 중흥기	186
대체에너지 테마주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186
ELS 만기시점의 시세조종 사건	191
11.11 옵션쇼크	195
증권방송을 이용한 부정거래	201
초대형 부정거래 사건인 CP사기발행 사건	207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사건	214
분식회계와 부정거래가 결합된 복합사건	219
5년마다 반복되는 대선 테마주의 악몽	224
법정자본비율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시세조종	234
SNS 채팅방을 이용한 신종 수법	241



맺음말	245
부록	249

1 [1988년~1996년]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도입·정착기

① 최초의 불공정거래 적발 사건		107p.
(개 요)	▶ K물산 대표이사가 유·무상증자 등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여 차명계좌 등을 통한 내부자 거래 및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	
(시사점)	▶ 국내 제1호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로 이 사건 처리를 계기로 불공정거래의 폐해와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졌으며, 조사 관련 전담조직 및 조사 관련 규정이 신설되는 등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기틀이 점차 마련되었음	
② 주가조작 사범에 중형을 선고하다		133p.
(개 요)	▶ 증권사 직원 및 일반투자자가 17,600원 수준이던 B약품 주가를 150,000원까지 끌어올리기로 공모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펀드매니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시세조종 사건	
(시사점)	▶ 최초로 본격적인 '작전'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는 사건으로,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들에게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에게 증권범죄의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음	

2 [1997년~2007년] 불공정거래의 지능화와 조사업무 역동기

③ 최초의 해외 현지 조사 사건		150p.
(개 요)	▶ 한국 국적의 펀드매니저 2명이 해외에서 시세조종 하는 경우 자금원 추적 및 조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노리고 홍콩 현지에서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한 채 K전자 주식을 시세조종하다 적발된 사건	
(시사점)	▶ 동 건은 금감원이 최초로 해외 현지를 방문하여 해외 감독기관의 협조 하에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동 건 처리를 통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발생하는 모든 증권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피력하였음	
④ 바이오 관련주와 불공정거래		153p.
(개 요)	▶ J제약이 세계에서 4번째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체세포 복제돼지 출산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회사 임직원이 동 미공개 정보를 주변 지인에게 유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사건	
(시사점)	▶ 당시 줄기세포 열풍으로 국내 증시에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였던 바이오 관련주 투자자들에게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음	

⑤ 온갖 작전세력이 동원된 주가조작의 완결판		182p.
(개 요)	▶ 무자본 M&A로 U사를 인수한 최대주주가 시세조종전문가와 손잡고 2,600원에 불과했던 자사 주가를 10배 이상인 27,700원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	
(시사점)	▶ 시세조종 과정에서 사채업자와 증권회사 직원 등 온갖 작전세력들이 총망라되었으며, 결국 불성실 공시 및 대주주 횡령 등이 겹치면서 13거래일 연속 하한가라는 증권시장 역사상 전무후무한 불명예를 남긴 종목으로 기록되었음	

3 [2008년~2018년] 불공정거래의 첨단화와 조사업무 중흥기

⑥ ELS 만기시점의 시세조종 사건		191p.
(개 요)	▶ 외국계 기관투자자가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주가지수연동펀드(ELS)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옵션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이 되는 현물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다 적발된 사건	
(시사점)	▶ 파생상품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현물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시세조종의 목적이 다양화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	

⑦ 초대형 부정거래 사건인 CP사기발행 사건		207p.
(개 요)	▶ L사 경영진과 최대주주가 회사가 이른 시일 내에 부도가 날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초단기 자금조달수단인 기업어음(CP)을 무분별하게 발행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부정거래 사건	
(시사점)	▶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포괄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조항(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이 신설되면서 CP사기발행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⑧ SNS 채팅방을 이용한 신종 수법		241p.
(개 요)	▶ 지인으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 합병 정보를 입수한 개인투자자가 유명 SNS 매체인 네이버밴드에 채팅방을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를 모집하여 이들과 함께 합병회사의 시세를 조종하다 적발된 사건	
(시사점)	▶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SNS가 투자자간 정보공유의 핵심 수단으로 등장하였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증권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유형의 증권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적절한 조사수단이 확충될 필요가 있음	